

광복 70년 불자들의 염원 울려 퍼지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광복절 기간동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과 호국불교의 위상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사찰에서 진행된 행사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노덕현 · 박아름 · 하성미 기자

“광복의 의미 불심으로 되새겨 통일의 밑거름으로”

남북불교공동대회 무산, 동시법회로

남북 불교계가 북측 불교계를 초청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 광복70주년기념공동법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의 동시법회로 진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조선불교도연맹과 8월 15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오후 1시 일제히 '조국통일기원 8·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공동법회 무산의 아쉬움 만큼 남북 불자들은 법회에서 분단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쌓았다.

조계사 법회에 참여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지홍 스님 등 불교계 대표인사들과 국외의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재가불자 2백여 명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은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신뢰에서 시작한다. 서로를 자극하는 정치·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걸림돌 5·24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전환 모색을 위해 올해 특사교환을 포함 고위급 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대북인도적지원에 앞장서 온 불교계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적으로는 단호하게, 경제·문화적으로는 우호 협력하는 자세로 남북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부처님

께서는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이 만든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하셨다”면서 “마찬가지로 통일도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염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희망을 내비쳤다. 매년 발표되던 남북불교계 공동발원문도 이날 무산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당초 법회 전 공동발원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북 경색국면 해소 한 목소리 순국선열 위무하며 통일 기원 지역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 “경제징용·군속에도 관심음”

전국 곳곳에서 법회 및 타종교의식 이어져 중앙의 행사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의 사찰에서는 타종교의식과 경축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는 타종교의식과 함께 광복절 경축행사 중 총격으로 사망한 육영수 여사의 추모제도 함께 열어 눈길을 끌었다.

도선사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33번의 타종교와 함께 애국지사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 추모법회를 진행했다. 1000여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도선사 주지 송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36년이라는 긴 시

간동안 암울했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라며 “다시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불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조상들께서는 일제의 온갖 만행을 겪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웠을 결과 오늘날 우리가 있다.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선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린다”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부산역 광장에서의 뮤지컬 모습

도서 스님을 비롯해 법회에 참석한 도선사 불자들은 “다시는 나라를 잃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 호국불교를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기념행사 후에는 도선사와 인연이 깊었던 육영수 여사의 41주기 추모제도 진행됐다. 육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육 여사는 생전 도선사 중창주인 청담 스님으로부터 ‘대덕화’라는 법명을 받은 바 있는 독실한 불자로 1960년대부터 육 여사는 도선사를 찾아 기도를 하곤 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도 광복절을 앞둔

14일 경내에서 10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 70주년 통일아리랑 국민대합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대중들은 ‘아리랑’을 합창하며 분단의 아픔을 달랬다. 또 주지 성행스님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한마음으로 삼창했다.

성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는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켜왔다”며 “통일 아리랑 합창으로 국민대합합을 이루고 통일을



블룸의 메시지 리본유기 행사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부산, 플래시몹·뮤지컬 행사 등 ‘눈길’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도 부산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8월 15일 부산역 광장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플래시몹은 수많은 군중들이 광장 등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퍼포먼스로 이날에는 광복 당시 진행된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오후 4시, 삼광사가 미리 고지한 인터넷과 SNS의 홍보자료를 본 시민들이 2000

명 넘게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 들었다. 이들은 아리랑과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세 삼창을 했다. 이에 앞서 전문예술극단 예저포의 안중근 의사 의거를 다룬 뮤지컬 ‘영웅 장부기’가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산 삼광사는 1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독립 유공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8회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 합동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선사 육영수 여사 추모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해 박성종 대한민국의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 회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살풀이춤으로 문을 연 1부 공연에서는 동래학춤, 바라부, 한량무 및 육법공양으로 독립유공자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부에서는 진혼곡을 시작으로 내민들의 추모사를 통해 유공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무원 스님은 “우리 국민들은 독립유공자들의 술회한 희생에 감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이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 13일에는 부산지역 6개 종단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공동선실천을 위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정여)가 원불교 동래교당에서 ‘광복절 기념 평화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광복의 소외계층 보듬는 활동도 활발

이와 함께 광복으로부터 소외됐던 이들을 위한 활동도 불교계에서 활발히 펼쳐졌다.

불교계 포교단체인 사단법인 ‘블룸’ (대표 김광호)은 8월 1~15일 주말 부산시민공원에서 임시군속후원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활동을 펼쳤다. 임시군속후원소 피해자들은 전범으로 몰려 광복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이들로, 명예회복활동은 ‘전범이 된 조선 청년들’ 영상 상영과 함께 이 지면 블룸 청소년센터장의 강연, 메시지로 전달기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으며 15일에는 진혼무를 비롯한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 기간동안 총 400여 시민들이 찾아 이들의 아픔을 공유했다.

김광호 블룸 대표(부산불교문화원 원장)는 “당시 강제동원된 129명 중 14명이 전범으로 몰려 사형됐으며 115명은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했다. 희생자들은 전범으로 몰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현재 일본에 4명만이 생존해 있다”며 “이들의 명예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산시민공원 내 흔적공원이 과거 임시군속후원소로 추정된다. 잊혀져 가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배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허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열복대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소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들에게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x5.2x2.0cm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꽂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

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고희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학교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들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들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